

의복의 적절성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화여대 학생의 캠퍼스 웨어를 중심으로 —

박 성 은 · 임 숙 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The Effect of Clothing Appropriateness
on Person Perception**

Sung Eun Park · Sook Ja L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Science and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1994. 10. 18 접수)

Abstract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study the college women's desirable clothing behavior in campu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person perception according to appropriate or inappropriate clothing.

Detailed object is to find out the following differences according to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clothing in campus: 1) formation of impression 2) inference of value. Additionally the difference in person perception according to major, grade and preference group are studied.

For data collection, 460 college women who are attending Ewha Woman's University are included, and convenience sampling method is used.

Frequency, percentage, mean, factor analysis, t-test, ANOVA, duncan test, correspondent analysis a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 are as follows:

- 1) Wearer's impression is divided into four factors: appearance evaluation, personality evaluation, ability and activity.
- 2)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mpression formation and value inference according to situational appropriateness.
- 3)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 perception according to major, grade and preference group.

I. 서 론

사회가 복잡해지고 체계화되어가면서 의복은 단순한 보호적 차원을 넘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생활에 있어서 좋은 의복이란 의복이 상황에 적절해야 하며 기후의 변화에 적당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더우기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므로 상황을 정의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의복상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대인지각에 의해 얻어진 시각정보들은 대상을 범주화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을 체계화시키도록 한다. 그러므로 의복의 착용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모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그들의 의견에 가치를 두게 되므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의복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어떤 상황에서의 적절한 옷차림은 묵시적인 규범에 의해 한정되게 되는데, 캠퍼스 웨어라 함은 주로 학생의 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웨어만큼 주위를 강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학생으로서의 상식적인 절도가 요구된다. 게다가 캠퍼스 웨어를 착용하는 집단이 연령적으로 보아 유행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년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패션이 캠퍼스 내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의복에 관심이 높은 집단인 여대생의 캠퍼스 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교 상황 요인에 따른 대인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즉 여대생의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대인지각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첫째, 학교 상황에서 여대생에게 적절한 의복과 적절하지 않은 의복을 규명할 수 있으며, 둘째,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황적 요인에 따른 대인지각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고, 셋째, 착용자의 입장에서 인상관리의 지침을 제공하여 여대생의 의복 착용방법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상황에서 적절한 의복과 적절하지 않은 의복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알아본다.
2. 학교 상황에서 적절한 의복과 적절하지 않은 의

복에 따른 가치관 추론의 차이를 알아본다.

부가적으로 관찰자의 계열과 학년, 선호집단에 따른 인상형성과 가치관 추론의 차이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인 지각 이론

일반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이나 사건 또는 자기 자신의 신체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을 통틀어서 지각(perception)이라 하며,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이란 그 대상의 인지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¹⁾. 이는 물리적 자극에 대응된 단순한 감각의 경험을 차원을 넘어 정보를 집단화(grouping)하고, 의미를 결정하며, 의식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매우 복잡한 일련의 정신과정이다. 이 과정은 감각을 통한 자료 자체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적이고 고차적(高次的)이며 자동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²⁾.

지각은 크게 대물지각(physical perception)과 사회지각(social perception)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사회지각 현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이다.

대인지각이라 함은 타인의 성격, 욕구, 감정, 의지, 사고 따위의 인지를 말하며, 이렇게 타인에게서 얻은 모든 지각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인지된 것을 인상이라고 한다³⁾. 대인지각은 상대방의 내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물지각과 다르며, 지각자 자신의 특성이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Taigiuri⁴⁾도 대인지각은 상대방의 내적 상태 등에 대해 생각하고 알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Mischel⁵⁾은 자신과 타인에게 부여하는 특징의 범주는 비교적 영구적이며 또한 행동에 비해 비교적 지속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인지각은 고도의 복잡한 과정으로 사람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찰하는 방식에서 추론과 재구조를 포함하고 있다⁶⁾.

Livesley와 Bromley⁷⁾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단계인 단서의 선택에서 지각자는 타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중에서 특정 단서를 골라내어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두번째 단계인 해석적 추론중에는 지각자가 선택한 단서들을 해석하고 인지

적 구조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에서 단서로서의 의복은 성격, 능력, 지적 정도와 같은 특성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번째 단계인 추론의 확대에서는 지각자가 특정한 개인의 특성을 넘어서 개인의 가족이나 일의 장소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까지도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때 후광효과가 작용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단계인 예기적 배경에서는 지각자가 해석적 추론과 확대된 추론을 통합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배당하여 상호작용의 기초로 삼는다.

2. 의복과 대인지각

Sears등⁸⁾은 의복에 의해 전달되는 인상차원을 대체로 평가(evolution), 능력(potency), 활동(activity)의 세 가지 기본 차원들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평가가 대인지각에 기초가 되는 주요인이고 능력과 활동은 다소 더 작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번의 만남에서 생긴, 한 맥락에서의 좋은 인상이거나 나쁜 인상은 모든 다른 상황들과 기타의 무관련한 특징들로 보이는 것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Damhorst⁹⁾은 의복에 의해 전달되는 인상차원이 4개의 범주, 즉 평가, 역능, 역동성, 사고적 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그중 평가적 차원에는 착용자의 성격, 사회성 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역능적 차원에는 힘, 능력, 지능 등의 지각이 포함되었다. 또한 역동성 차원은 활동성, 통제, 자극 등이 포함되었고, 사고적 차원은 신념체계,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의복과 관련된 의미 미분 척도를 개발한 박혜선¹⁰⁾의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은 평가, 활동, 역능, 유행 요인이었다.

Horn¹¹⁾은 각 사회 속에서 바르게 적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정된 표준들과 또한 옳지 않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복행동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는 의복이 인격, 역할, 지위식별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의 정의를 제공한다고 보고, 최근 들어 상황적 적합성에 대한 금지사항들이 크게 완화되었을지라도 아직은 의복의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위한 무대를 설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조차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중 의복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 개인의 내적 상태나 상황이 변했음을 알려

기 위해 의복 상징의 사용은 변화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상황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더우기 특정 사회 상황에 대한 의복기대에는 차이가 있어 이 기준에 어긋날 경우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어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의복의 적절함과 적절하지 않음은 주로 문화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¹²⁾.

Damhorst¹³⁾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맥락 내에서 의복 단서가 갖게 되는 의미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Workman과 Johnson¹⁴⁾도 그들의 연구에서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의복을 착용한 택시기사의 성격 특질에 대한 해석적 추론과 기사의 능력에 대한 확대된 추론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들의 의복을 근거로 하여서 형성되는 추론은 개인적 특질을 넘어 그들이 일하는 회사의 특징에까지 확대된다고 증명하였다.

3. 의복행동과 가치관

가치관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여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일단 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확립된 후에는 개인의 행위를 지배하는 중요한 독립변수 중의 하나가 된다¹⁵⁾. 가치관이란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개인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데 동기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력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진다. 따라서 가치관 연령, 계층, 성(性), 장소와 시간에 따라 즉 개인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과학자들은 어느 특정사회는 그 사회를 설명해주는 유형화된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경험적 연구들을 진행시켜 왔다. 또한 의류학에서도 가치관은 선택대상이 제시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며, 의복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상호작용을 위한 의복유형의 계획된 선택뿐만 아니라 지각과 구입까지도 유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가치관과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 가치관과 의복 가치관 및 의복 흥미,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관 성향이 의복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의도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어떤 의복 스타일이든지 하나 이상의 가치관을 표현한다고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지각을 형성함에 있어 이를 체계화시키고 정돈함에 의해 '단순화'시키고자 한다는 귀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복을 통한 가치관 유형들의 표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eekmore¹⁶⁾나 Sharma¹⁷⁾의 연구에서 가치관 유형들은 의복에 대한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의복이 항상 실제 가치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치성향이 의복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또한, Unger와 Raymond¹⁸⁾는 인종과 복장이 어는 정도로 정확하게 가치관을 예측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들은 이탈된 방식의 히피나 관습적인 방식으로 옷을 입는 흑인과 백인 남사대대학생을 대상으로 4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인종에 관계없이 이탈된 복장을 한 남학생은 관습적 복장을 한 남학생보다 독립심, 상상력, 사랑에 더 가치를 두었고, 관습적으로 옷을 입는 학생은 야망과 복종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복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을 나타내주며, 가치를 예측하는 것으로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여대생의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과 적절하지 않은 의복에 대한 인상형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연구문제 2: 여대생의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과 적절하지 않은 의복에 대한 가치관 추론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연구문제 3: 관찰자의 계열과 학년, 선호집단에 따른 인상 형성과 가치관 추론의 차이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극물의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될 자극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1991년과 1992년 두 해에 걸쳐 3~5월에 이화여대 교정에서 촬영하여 수집된 총 2,000여장의 사진들을 가지고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차림의 의복을 분류하였으며, 2차 예비조사에서는 여대생의 학교 상황에 적절한 차림과 적절하지 않은 차림의 사진을 각 10개씩 선정하도록 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다시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4학년 학생 54명에게 제시한 3차 예비조사에서는 가장 적절한 차림과 가장 적절하지 않은 차림을 각각 3개씩 고르도록

<표 1> 자극물의 구성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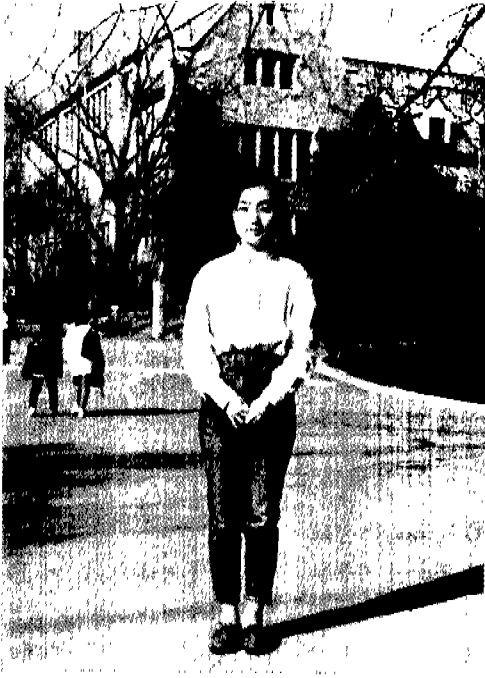
구 성		자 극 물
적절한 의복	의복 1	버튼다운 셔츠 ^{a)} (분홍)+청바지
	의복 2	폴로 셔츠 ^{b)} (분홍)+반바지(회색)
	의복 3	블라우스(검정)+타이트 스커트(검정)+자켓(흰색)
	의복 4	티셔츠(흰색)+청바지+자켓(검정)
적절하지 않은 의복	의복 5	블라우스(검정)+미니 스커트(검정)+자켓(검정)
	의복 6	플레어 스커트(빨강색 꽃무늬)+자켓(노랑)
	의복 7	헨리 셔츠 ^{c)} (검정)+미니 스커트(검정)+타이즈(검정)
	의복 8	블라우스(검정)+하렘 바지 ^{d)} (검정)

^{a)} 버튼다운 셔츠(button-down shirts) : 칼라 끝에 단추가 달려 있는 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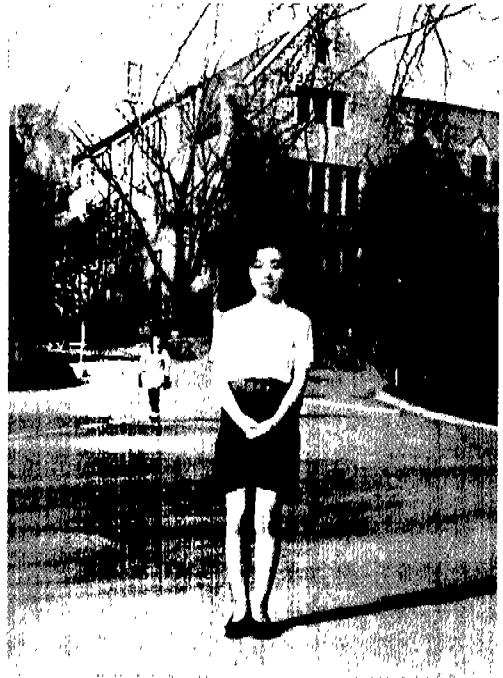
^{b)} 폴로 셔츠(polo shirts) : 등근 네크라인에 각이 있는 칼라로 된 줄무늬로 짜여지거나 조밀하게 짜여진 폴오버 셔츠

^{c)} 헨리 셔츠(Henley shirts) : 칼라가 없고, 짧은 소매와 앞부분이 트여진 니트로 된 폴오버 셔츠

^{d)} 하렘 바지(harem pants) : 허리와 발목에 주름이 잡힌 매우 너넉한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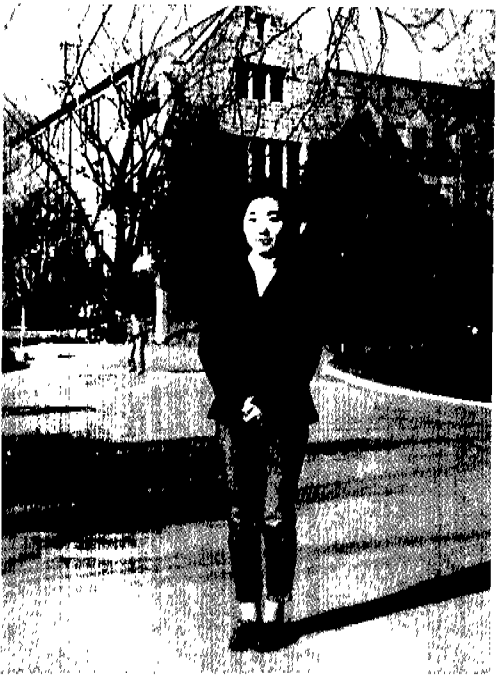
의복 1



의복 2



의복 3



의복 4

[사진-1]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



의복 5



의복 6



의복 7



의복 8

[사진-2] 학교 상황에 걱정하지 않은 의복

하고, 20개의 각 사진에 대하여 학교 상황에 적절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으며, 그 이유를 자유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와 여대생의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¹⁸⁻²²⁾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여대생의 학교상황에 적절한 차림의 사진 4개와 적절하지 않은 차림 4개를 선정하였다. 이는 다시 의복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통제시키기 위하여 표준 체격을 가진 모델에게 사진조사에서 선정된 사진과 동일한 의복을 착용시켜서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5×7 칼라사진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사진 1, 사진 2]

2) 인상 형성 요인의 추출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인상 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의미 미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형용사를 수집하고, 2차에 걸친 예비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43개의 형용사쌍을 선정하였다. 이를 7점 척도의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점수가 높은 것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3) 가치관 추론의 측정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극물 내의 인물의 가치관 추론을 측정하기 위하여 황용연²⁴⁾의 가치관 검사지를 기초로 하여 여대생의 가치관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하위개념을 추출하고, 문항간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에 의하여 사회풍조, 개인주의적 경향, 연애결혼의 선호, 남녀평등사상, 전통윤리의 중시, 외래윤리에의 영합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풍조'라 함은 금전만능의 사고방식과 외래풍조 수용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인주의'란 개인주의적인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많음을 나타낸다. '연애결혼'이란 연애결혼을 선호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애결혼을 선호하는 것이고, '남녀평등'은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 사상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전통윤리'는 효도 사상과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포함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이러한 사상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외래윤리'란 성(性)에 대한 개방 의식과 퇴폐풍조에 영합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큰 것이다. 공통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이

보수적인 측면의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4) 의복 선호 집단의 분류

8가지 자극물의 의복별로 선호도와 착용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조사하여 합산한 점수를 의복 선호 점수라 정의하고, 이 점수가 2~4점이면 긍정적 집단, 5~7점이면 무관심 집단, 8~10점이면 부정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연구대상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추출은 편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4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번째 부분은 인상 형성의 자극정보가 되는 사진이고, 두번째 부분은 자극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형성을 조사하기 위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번째 부분은 자극물 속의 인물의 가치관을 추론하기 위한 문항으로 되어 있고, 네번째 부분은 의복 선호도와 착용정도를 묻는 문항과 개인적 환경 변인인 계열과 학년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설문지에는 1가지 자극 사진만이 제시되며, 피험자는 8가지 자극물 중 한 가지에 무선배치되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자료는 1993년 4월 26일부터 30일간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이중 460부의 설문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 SAS Package를 사용하여 의미 미분 척도는 요인분석하여 각 요인별 산술평균을 계산하였고, 인상 형성의 차이와 가치관 추론의 차이 및 의복선호점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던컨의 다중 비교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 착용자에 대한 인상요인

여대생이 상대방에 대하여 인상을 형성할 때 의복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인상요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체관찰자를 대상으로 형용사쌍에 대한 Varimax회전법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타당한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Scree Plotting을 실시하고, 요인의 분포를 분석하여 요인의 수를 3개로 확정하였

<표 2>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요인의 분석

요인 1 (평가)	요인 점수	요인 2 (능력)	요인 점수	요인 3 (활동)	요인 점수
22. 경박하다-신중하다	.83	7. 멋없다-멋있다	.69	8. 비활동적이다-활동적이다	.74
16. 성실하지 않다-성실하다	.79	21. 성공적이지 못하다-성공적이다	.60	17. 나이들어보인다-젊어보인다	.68
26. 충동적이다-충동적이지 않다	.77	24. 전문적이지 않다-전문적이다	.59	12. 의존적이다-주도적이다	.60
4. 단정하지 않다-단정하다	.76	27. 자신감없다-자신감있다.	.59	9. 의욕없다-의욕있다	.59
23. 차분하지 않다-차분하다	.75	33. 둔하다-예리하다	.57	14. 점잖다-발랄하다	.59
19. 겸손하다-자만심이 강하다	.73	18. 미숙하다-노련하다	.54	29. 연약하다-강건하다	.59
34. 예의바르지 않다-예의바르다	.73	15. 우유부단하다-결단력있다	.45	43. 여성적이다-남성적이다	.54
31. 인상이 좋지 않다-인상이 좋다	.66	32. 비사회적이다-사회적이다	.45	41. 실천적이지 않다-실천적이다	.52
36. 책임감없다-책임감있다	.65			39. 복종적이다-지배적이다	.47
40. 낮설다-친밀하다	.60				
6. 지적이지 않다-지적이다	.58				
10. 깨끗하지 않다-깨끗하다	.58				
25. 이기적이다-관대하다	.56				
37. 멀리하고 싶다-사귀고 싶다	.53				
30. 비논리적이다-논리적이다	.51				
1. 개성적이지 않다-개성적이다	-.48				
2. 소극적이다-적극적이다	-.52				
11. 내향적이다-외향적이다	-.58				
20. 보수적이다-개방적이다	-.66				
5. 소심하다-대담하다	-.70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4.08		9.84		9.84
총설명력(%)	43.76				

으며 <표 2>, 각각에 포함된 형용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상 요인은 전통적으로 인상의 3대 요인이라고 인정되어 온 평가, 능력 및 활동 차원과 일치하였다.

여기서 평가요인으로 묶인 형용사쌍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너무 많고 그 특성이 재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평가요인에 대한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 평가 요인과 성격 평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표 3>. 이는 선행연구²⁵⁾ 결과에서 인상형성의 평가적 차원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둔 것인데,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상대를 지각하는 방식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비교적 변하지 않는 사고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Kaiser²⁶⁾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조사에 사용된 43개의 형용사쌍 중에서 요인분석 결과 2개 이상의 요인성격을 지닌 형용사쌍과 통계적 설명률이 낮은 형용사쌍 6개를 제외한 총 37개의 형용사쌍을 외모 평가 요인, 성격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으로 분류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중 평가 요인이 인상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컸는데(24.08%), 이러한 결과도 인상차원에서 평가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2. 상황적 적절성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의복을 입은 착용자가 적절하지 않은 의복을 입은 착용자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었다<표

<표 3> 평가요인의 재분류

요인 1 (평가)			
요인 1-1 (외모평가)	요인 점수	요인 1-2 (성격평가)	요인 점수
31. 인상이 좋지 않다-인상이 좋다	.78	5. 소심하다-대담하다	.81
37. 멀리하고 싶다-사귀고 싶다	.72	2. 소극적이다-적극적이다	.77
22. 경박하다-신중하다	.68	20. 보수적이다-개방적이다	.77
4. 단정하지 않다-단정하다	.67	11. 내향적이다-외향적이다	.72
10. 깨끗하지 않다-깨끗하다	.67	26. 충동적이다-충동적이지 않다	.62
16. 성실하지 않다-성실하다	.66	1. 개성적이지 않다-개성적이다	.60
36. 책임감없다-책임감있다	.65	19. 결손하다-자만심이 강하다	.56
6. 지적이지 않다-지적이다	.64		
40. 낯설다-친밀하다	.63		
34. 예의바르지 않다-예의바르다	.61		
30. 비논리적이다-논리적이다	.57		
23. 차별하지 않다-차분하다	.55		
25. 이기적이다-관대하다	.44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6.11		4.91
총설명력(%)	11.02		

4). 즉 적절한 의복을 입은 사람은 적절하지 않은 의복을 입은 사람보다 더 단정하고, 지적이며, 깨끗하고, 성실하고, 예의바르며, 책임감있고, 인상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t=14.7168, p<.001$), 동시에 더 활동적이며, 의욕있고, 주도적이며 실천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t=7.5933, p<.001$). 또 적절하지 않은 의복을 입은 사람은 적절한 의복을 입은 사람보다 개성적이며,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개방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다($t=14.5903, p<.001$). 이러한 결과는 의복이 성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상황과 일치된 의복이 더욱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복 착용자가 학생이라고 제시되었으므로, 학교라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후광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의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외모 평가 요인($F=66.67, p<.001$), 성격 평가 요인($F=70.08, p<.001$), 활동 요인($F=45.34, p<.001$)뿐만 아니라 능력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F=3.45, p<.01$) 의복이 인상 형성에 지대한 영

<표 4> 의복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

인상 요인	평 균		t
	적절한 의복 (n=234)	적절하지 않은 의복 (n=224)	
외모평가	4.98	3.74	14.7168***
성격평가	3.38	4.85	-14.5703***
능 력	4.14	4.23	- 1.0572
활 동	4.70	3.98	7.5933***

*** $p<.001$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외모 평가 요인 의 경우에는 검정색인 의복 5와 의복 7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검정색의 의복이 깔끔하지 못하고 어두운 인상을 형성한다는 이주현²⁷⁾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성격 평가 요인 의 경우에는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이 소극적인 성격으로 지각되어 관찰자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능력 요인에서는 약간의 차이있는 결과를 보여

<표 5> 8개 자극물의 4개 인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에 따른 집단 구분

인상 요인 \ 의 부*		의부 1 (n=52)	의부 2 (n=58)	의부 3 (n=54)	의부 4 (n=61)	의부 5 (n=67)	의부 6 (n=58)	의부 7 (n=56)	의부 8 (n=54)	F
외모 평가	평 균	4.96	5.03	5.16	4.80	4.05	4.63	3.13	3.05	66.67***
	집단구분	AB	AB	A	BC	D	C	E	E	
성격 평가	평 균	3.52	3.63	2.88	3.47	4.93	3.57	5.31	5.63	70.08***
	집단구분	C	C	D	C	B	C	A	A	
능력	평 균	4.09	4.21	4.11	4.16	4.61	4.25	3.86	4.14	3.45**
	집단구분	BC	BC	BC	BC	A	B	C	BC	
활동	평 균	5.25	4.99	3.62	4.91	4.22	3.89	4.79	3.47	45.34***
	집단구분	A	AB	D	B	C	D	B	D	

p<.01 *p<.001

학교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의복이 적절한 의복보다 능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이 대부분 캐주얼 복장으로 제시되어 전문인의 이미지를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활동 요인의 경우에도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이 더 활동적일 뿐더러 주도적이고 발랄하며, 실천적인 인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관찰자의 계열과 학년에 따라서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같은 의복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연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성격 평가 요인: F=6.29, p<.01, <표 6>), 또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관찰자가 더 반응의 차가 컸다(성격 평가 요인: F=4.16, p<.05, 능력 요인: F=3.80, p<.05, 활동 요인: F=5.59, p<.05, <표 7>). 이는 예체능계열과 고학년의 관찰자가 비교적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예체능계열의 전공자들을 유행선도자 집단에 포함시킨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사회화의 측면에서 적응시기에 있는 저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새로운 집단에서의 의복규범을 파악하고 동조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복 선호 집단에 따라서는 같은 의복을 평가할 때 선호집단의 관찰자가 가장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는데(외모 평가 요인: F=12.26, p<.001, 성격 평가 요인: F=19.77, p<.001, 능력 요인: F=28.79, p<.001, 활동 요인: F=13.75, p<.001,

<표 6> 계열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

인상 요인 \ 계 열		인문계열 (n=239)	자연계열 (n=101)	예체능계열 (n=114)	F
외모 평가	평 균	4.39	4.25	4.34	1.35
	집단구분	A	A	A	
성격 평가	평 균	4.08	4.41	3.98	6.29**
	집단구분	AB	A	B	
능력	평 균	4.12	4.37	4.18	1.22
	집단구분	B	A	AB	
활동	평 균	4.35	4.38	4.24	0.59
	집단구분	A	A	A	

**p<.01

<표 8>), 이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의복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의복과 계열간(외모 평가 요인: F=1.79, p<.05), 의복과 선호 집단간(능력 요인: F=2.72, p<.01), 계열과 선호 집단간(성격요인: F=6.34, p<.001, 능력 요인: F=3.08, p<.05, 활동 요인: F=2.54, p<.05)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 상황적 적절성이 가치관 추론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의복을 착용한 사람과 적절하지 않은 의복을

<표 7> 학년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

인상 요인		학 년		F
		저학년 (n=199)	고학년 (n=255)	
외모 평가	평 균	4.31	4.37	1.75
	집단구분	A	A	
성격 평가	평 균	4.28	4.00	4.16*
	집단구분	A	B	
능력	평 균	4.30	4.10	3.80*
	집단구분	A	B	
활동	평 균	4.56	4.14	5.59*
	집단구분	A	B	

*p<.05

<표 8> 선호집단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

인상 요인		선호집단			F
		긍정적 집단 (n=52)	무관심 집단 (n=182)	부정적 집단 (n=220)	
외모 평가	평 균	5.17	4.68	3.88	12.26***
	집단구분	A	B	C	
성격 평가	평 균	3.90	4.03	4.26	19.77***
	집단구분	B	AB	A	
능력	평 균	4.67	4.38	3.92	28.79***
	집단구분	A	B	C	
활동	평 균	5.34	4.55	3.91	13.75***
	집단구분	A	B	C	

***p<.001

착용한 사람에 대한 가치관을 추론할 때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적절한 의복을 입은 사람은 적절한 지 않은 의복을 입은 사람보다 전통을 중시할 것이며 (F=-9.3438, p<.001), 남녀평등사상이 강할 것이고 (F=2.0103, p<.05), 효도와 신의사상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추론되었다. 반면 적절하지 않은 의복을 입은 사람은 적절한 의복을 입은 사람에 비하여 금전 만능의 사고방식을 가졌을 것이며 (F=-12.8647, p<.001), 개인주의적인 것이고 (F=-12.0526, p<.001), 연애결혼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F=-3.0429, p<.01), 또한 성(性) 문제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퇴

<표 9> 의복에 따른 가치관 추론의 차이

가치관	의 복		t
	평 균	적절한 의복 (n=233)	
사회봉조	2.82	3.44	-12.8647***
개인주의	2.69	3.41	-12.0526***
연애결혼	3.18	3.38	- 3.0429**
남녀평등	3.59	3.46	2.0103*
전통윤리 ^a	2.87	3.30	- 9.3438***
외래윤리	2.67	3.23	-10.1242***

*p<.05 **p<.01 ***p<.001

^a 점수가 낮으면 전통윤리를 중시하는 것임

폐풍조와 쉽게 영합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F=-10.1242, p<.001, <표 9>) 이러한 결과는 상황에 적절한 의복이 긍정적인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 Workman과 Johnson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의복은 상징과 가치관 등을 내재하고 있는 변인으로서 대인지각시에 고정관념에 의해서 의복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복별로 살펴보면 사회봉조(F=37.26, p<.001), 개인주의(F=24.99, p<.001), 연애결혼(F=11.71, p<.001), 남녀평등(F=7.66, p<.001), 전통윤리(F=17.26, p<.001), 외래풍조(F=28.79, p<.001)의 6가지 변인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의복이 가치관 추론에 유용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 10>). 이때 적절한 의복 착용자가 적절한 지 않은 의복 착용자보다 전통윤리를 중시할 것이지만 남녀평등 사상이 강할 것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적절한 의복이 대부분 유행을 따르지 않는 캐주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가장 건전한 가치관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된 의복은 의복1이었는데, 이는 셔츠 칼라의 상의와 청바지를 착용한 보편적이고 친숙한 캠퍼스 웨어였다.

관찰자의 계열에 따라서는 가치관 추론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학년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연애결혼: F=5.43, p<.01, 남녀평등: F=3.82, p<.05, <표 11>). 관찰자별 선호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면, 남녀평등 사상에

<표 10> 8개 자극물의 6개 가치관 추론에 대한 평균점수에 따른 집단구분

가치관 \ 의복		의복 1 (n=52)	의복 2 (n=58)	의복 3 (n=54)	의복 4 (n=61)	의복 5 (n=67)	의복 6 (n=58)	의복 7 (n=56)	의복 8 (n=54)	F
사회 풍조	평균 집단구분	2.70 E	2.96 CD	2.76 E	2.86 DE	3.47 B	3.06 C	3.48 B	3.77 A	37.26***
개인 주의	평균 집단구분	2.48 D	2.83 C	2.91 C	2.54 D	3.46 AB	3.26 B	3.42 AB	3.52 A	24.99***
연애 결혼	평균 집단구분	3.31 BC	3.35 BC	2.85 D	3.18 C	3.52 AB	2.85 D	3.72 A	3.43 BC	11.71***
남녀 평등	평균 집단구분	3.71 A	3.71 A	3.22 B	3.71 A	3.65 A	3.18 B	3.70 A	3.28 B	7.66***
전통 윤리	평균 집단구분	2.81 C	2.96 BC	2.91 BC	2.79 C	3.31 A	3.05 B	3.45 A	3.40 A	17.26***
외래 윤리	평균 집단구분	2.68 CD	2.84 C	2.53 D	2.62 CD	3.24 B	2.74 CD	3.43 AB	3.55 A	28.79***

***p < .001

<표 11> 학년에 따른 가치관 추론의 차이

가치관 \ 의복		저학년 (n=199)	고학년 (n=255)	F
사회 풍조	평균 집단구분	3.20 A	3.09 B	0.04
개인 주의	평균 집단구분	3.04 A	3.07 A	0.55
연애 결혼	평균 집단구분	3.43 A	3.16 B	5.43**
남녀 평등	평균 집단구분	3.63 A	3.44 B	3.82*
전통 윤리	평균 집단구분	3.10 A	3.08 A	1.67
외래 윤리	평균 집단구분	2.96 A	2.95 A	0.44

*p < .05 **p < .01

<표 12> 선호집단에 따른 가치관 추론의 차이

가치관		선호집단 (n=52)	긍정적 집단 (n=182)	무관심 집단 (n=220)	부정적 집단 (n=220)	F
사회 풍조	평균 집단구분	2.79 C	3.07 B	3.28 A	2.31	
개인 주의	평균 집단구분	2.59 C	2.90 B	3.30 A	0.08	
연애 결혼	평균 집단구분	3.36 A	3.29 A	3.26 A	1.88	
남녀 평등	평균 집단구분	3.78 A	3.62 A	3.39 B	2.65*	
전통 윤리	평균 집단구분	2.80 C	3.02 B	3.22 A	0.71	
외래 윤리	평균 집단구분	2.78 B	2.88 B	3.05 A	2.13	

*p < .05

관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F=2.65, p < .05, <표 12>).

각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제열과 선호집단간에 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외래윤리: F=2.84, p < .05).

4. 관찰자 변인에 따른 의복선호점수의 차이

제열과 학년에 따라서 의복선호점수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9.55, p < .001, <표 13>)(F=7.87, p < .001, <표 14>). 특히 학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1, 2, 3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의복

<표 13> 계열에 따른 의복 선호 점수*의 차이

계열 의복	인문계열 (n=239)	자연계열 (n=101)	예체능계열 (n=114)
의복 1	5.31	4.83	5.30
의복 2	6.45	5.58	6.63
의복 3	7.07	7.18	7.92
의복 4	5.82	5.44	6.06
의복 5	8.00	7.69	7.32
의복 6	8.08	8.44	8.14
의복 7	8.41	8.46	8.50
의복 8	8.15	9.42	8.58

F=9.55***

***p>.001

* 점수가 낮으면 선호하는 것임

<표 14> 학년에 따른 의복 선호 점수의 차이

학년 의복	1학년 (n=53)	2학년 (n=146)	3학년 (n=152)	4학년 (n=103)
의복 1	4.67	4.90	5.50	5.80
의복 2	5.00	5.92	7.37	5.67
의복 3	8.33	6.55	6.60	7.58
의복 4	5.27	5.96	6.38	5.33
의복 5	7.43	7.80	8.12	7.31
의복 6	8.33	8.30	8.33	8.16
의복 7	8.33	8.30	8.50	8.33
의복 8	9.14	8.54	8.50	8.50

F=7.87***

***p<.001

의 의복1이었던 것과 달리, 4학년은 의복4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취업과 결혼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협상으로서 캐주얼과 정장을 조화시킨 의복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호점수에 대하여 의복과 계열, 의복과 학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캠퍼스 웨어를 중심으로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과 적절하지 않은 의복에 대한 인상형성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가치관 추론의 차이를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관찰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에 사용될 자극물을 선정하기 위해 1991년과 1992년 두 해에 걸쳐 3~5월에 캠퍼스 내에서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과 적절하지 않은 의복을 각 4개씩 선정하여 사진 자극물을 제작하였는데, 여대생들은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의 조건으로 단정하고, 깨끗하며, 활동이 편할 것을 들었으며, 적절하지 않은 의복의 조건으로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 고가의 의복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상형성 측정에 사용될 의미 미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형용사쌍을 수집하고 이중 43개의 형용사쌍을 추출하였다. 자극물 내의 의복 착용자의 가치관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형용어의 가치관 검사지를 기초로 여대생에 적합한 하위 개념을 선정하여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의복별로 선호도와 착용정도를 조사하여 의복 선호점수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긍정적 집단, 무관심 집단, 부정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는 1993년 4월에 시행하였고, 이중 46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여대생이 상대방에 대하여 인상에 형성할 때 의복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인상요인은 외모 평가 요인, 성격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상황에 따른 의복의 적절성은 외모 평가 요인, 성격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적절한 의복을 입은 착용자는 적절하지 않은 의복을 입은 착용자보다 외모 평가 요인과 활동 요인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고, 성격 평가 요인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의복 착용자가 더 대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복별로는 외모 평가 요인, 성격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찰자 변인에 따라서는 성격 평가 요인에서 계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모 평가 요인, 성격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 모두에서 학년과 선호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황에 따른 의복의 적절성은 사회풍조, 개인주

의, 연애결혼, 남녀평등, 전통윤리, 외래윤리의 6가지 가치관 변인을 추론하는데 있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절한 의복 착용자가 적절하지 않은 의복 착용자보다 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추론되었다.

의복별로는 사회봉조, 개인주의, 연애결혼, 남녀평등, 전통윤리, 외래윤리의 6개 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찰자의 계열에 따라서는 가치관 추론에 유의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고, 연애결혼 변인에서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남녀평등 변인에서는 학년별, 선호집단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 관찰자의 계열과 학년에 따라서 의복 선호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극물이 실제인물이 아닌 사진이었기 때문에 관찰자가 상대방을 지각하는데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며, 편의표집에 의하여 피험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황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그에 따른 의복 단서의 의미를 밝히고, 피험자 집단을 확대 하며, 의복 착용자와 관찰자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석, 심리학 개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 고영희, 이지영, 홍기원,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성원사, (1983)
- 정양은, 심리학 통론, 범문사, (1976)
- Taigiuri, R., Person Perception, 을 인용한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Macmillian Publishing Co., (1990)
- Mischel, W., Personality and Assessment, John Wiley & Sons Inc., (1968)
- Asch, S.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41, 258-290, (1946)
- Liversley, W.J., Bromley, D.B., Person Percep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hn Wiley & Sons Inc., (1973)
- Sears, D.O., Freedman, J.L., Pepleau, L.A., Social Psychology, 5th ed., Prentice-Hall, Inc., (1985)
- Damhorst, M.L.,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 1-12, (1990)
- 박혜선, 이은영, 의복에 대한 의미 미분 척도의 구성 요인 도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논문집, 9, 103-107, (1984)
- Horn, M.J., Gurel, L.M., The Second Skin, Double-day, (1981)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84)
- Damhorst, M.L., Meaning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8(2), 164-169, (1985)
- Workman, J.E., Johnson, K.P., The Role of Clothing in Extended Inferenc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2), 164-169, (1989)
- 홍승직,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대 아세아 문체연구소, 13, (1970)
-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를 인용한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1985)
- Sharma, R.S., Clothing Behavior, Personality, and Values: A Correlational Study, *Psychological Studies*, 25, 137-142, (1980)
- Unger, R., Raymond, B., Experimental Criteria as Predictors of Values: The Importance of Race and Attir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3, 295-296, (1974)
- 엄기욱, 청주 지역 여대생의 의복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임숙자, 여대생의 의복 착용 스타일에 관한 실태 조사(I), 이화여자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원 논총, 54, (1988)
- 박혜정,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예체능 계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임숙자, 여대생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의복 행동 변인과 사회 심리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한희원, 패션스타일에 관한 용어집, 경춘사, (1991)
- 황응연, 대학생의 가치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74)
- 조금호, 대인 평가 차원의 이원성에 관한 연구: 호악성과 화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2)
-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Macmillian Publishing Co., (1990)
- 이주현, 의복 단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